

야간 촬영을 위한 Tip: 야경을 찍어봅시다

by Paul Hong

1. 무엇을 찍으실 건가요?

일단 사진을 찍기 전에 찍을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내가 찍을 대상이 사람인지 아니면 풍경인지에 따라서 사진 찍는 방법이 달라지거든.

일단 야간 인물 촬영이라면

고감도 (High ISO)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거나

보조광 (Strobe/Flash)이 필요해

만약 두가지 조건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쿨하게 빛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이동시켜 촬영하는 수 밖에... 헤헤헤...



삼각대로 약 1분 정도 촬영한 달 사진

야간 풍경 촬영이라면 삼각대가 필수적이야.

조리개 (Aperture)를 조여주어야 하는데 그럼 셔터스피드를 희생해야 하거든.

셔터스피드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촬영하게 되면 심중팔구 Blura가 생기지.

여기서도 역시 고감도 (High ISO)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라면 좀 쉬겠지만 만 만약에 없는 경우라도 풍경은 사람과 달리 촬영이 걸어진다고 짜증내진 않으니깐 조용히 삼각대 꺼내서 몇 초던지 촬영을 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인물 이던 풍경이던 지 간에 사전에 촬영대상에 대한 이해와 구도를 먼저 머리 속에 그려놓고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거야. 촬영에 대한 구상이 끝났으면 이에 맞춰 필요한 장소로 이동하고 적절한 시기를 찾아서 사진을 찍으면 완성!

2. 언제 찍으실 건가요?

야경이라고 다 캄캄한 밤에 찍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느 정도 빛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촬영을 시작해. 해가 지기 약 한 시간 전부터 장소 확보하고 해가 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고 나서 얼마 안지날 때까지가 사진 찍기 가장 좋은 황금의 시간! 아직 여명이 남아 있는데 여러 조명들이 켜지면서 가장 화려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지!

너무 늦은 저녁이거나 빛이 전혀 확보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여기도 말했듯이 고감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나 보조광이 필수야.

뭐가 되던 사진이란 건 빛을 담는 기술이니깐

빛이 없으면 말장도 루묵인거지.

3. 장비

자... 사진 찍을 대상도 결정했고 장소도 확보하고 시간까지 맞췄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어야 할텐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바로 장비.

야간 촬영을 위한 장비!



으랏 ChaCha~

1. 카메라

완만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라면 딱딱이도 사용 가능하겠지만 역시나 야간 촬영에는 고감도 촬영 가능한 카메라 환영! ISO 1600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이면 충분함.

2. 렌즈

렌즈는 빛갈라짐을 나타내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렌즈의 조리개 매수에 따라서 빛 갈라짐의 숫자가 달라져.

렌즈 조리개 매수가 짝수일 경우: 조리개 매수만큼 빛이 갈라짐

렌즈 조리개 매수가 홀수일 경우: 조리개 매수 x 2 만큼 빛이 갈라짐

자세한 건 밑에 적을테니 일단 여기 쿨하게 패스!

3. 삼각대

삼각대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흔들림 방지이니까 바람이 불어도 단단하게 지탱해줄 수 있는 삼각대와 헤드가 필요함!

4. 보조광

보조광 (Strobe/Flash)는 야간 인물촬영할 땐 거의 필수지만 야간 풍경 사진이라면 잘 사용되지 않아. 인물촬영만 아니라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장비. 없다고 하더라도 카메라 내장 플래시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사진을 찍을 수 있지.

5. 릴리스

릴리스 역시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무방함.

4. 야간 촬영

자 여기까지 읽어내려간 당신의 인내에게 일단 박수!

이제부터 실질적인 야간 촬영에 대해서 알려줄게.

A. Aperture: 조일 것인가 개방할 것인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조리개 (Aperture) 세팅이야.

일반적으로 야경을 찍을 땐 조리개를 조여주라고 말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조리개를 조이기 전에 일단 무슨 사진을 찍을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 때에 따라 조리개를 개방해서 아 웃표커싱 효과를 노리거나 좀 더 몽환적인 사진을 찍어볼 수도 있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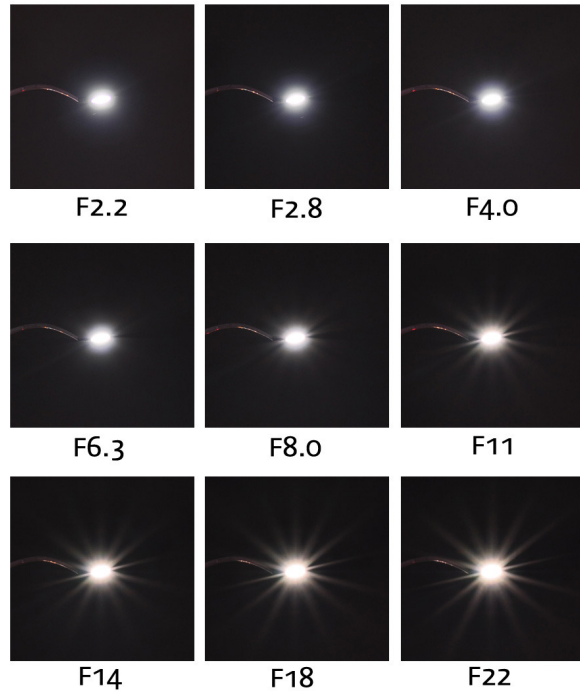
옆에 있는 사진은 저녁시간 때 길거리에서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하고 파란 빛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아웃포커싱 효과로 뒤에 빛방울들을 만들어 본 사진이야. 빛방울들이 너무 많아서 좀 지저분해보이긴 하지만... 뭐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감이 올 것?

수동 렌즈로도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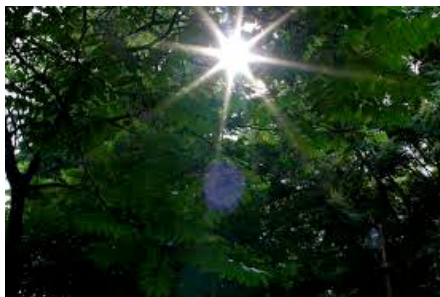
대부분 야경에 조리개를 조이는 이유는 풍경사진에 깊은 심도가 필요한 이유도 있겠지만 바로 빛갈라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빛갈라짐이란 조리개와 렌즈에 깊은 연관이 있는데

옆에 보시다시피 조리개 수치에 따라서 빛갈라짐 현상이 두터워지는 걸 볼 수 있어. 초대개방인 F 2.2 에선 빛망울만 보이다가 조리개를 서서히 조이고 대략 F 8.0 에서 부터 빛갈라짐 현상이 점점 뚜렷해지는 게 보이는데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 빛을 받아드리는 양이 줄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진의 질과 디테일이 점점 떨어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야간 촬영에서는 약 F 11 정도까지만 조여주는 것을 권장하지.

하지만 이런 세팅이야 카메라마다 다르고 렌즈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여러 장 테스트샷을 찍어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빛갈라짐은 렌즈에 따라서 다른데 위에 간단하게 요약했지만 조리개 매수에 따라서 달라져. 조리개 매수가 짝수일 때는 매수만큼 빛갈라짐이 나오고 홀수일 때는 매수의 두배되는 빛갈라짐 현상이 나오는데



조리개 매수가 짝수일 경우
조리개 매수 = 8장



조리개 매수가 홀수일 경우
조리개 매수 = 아 눈 아피쳐서 퍼스...

위 비교 사진으로 볼 수 있듯이 찍수인 경우가 훨씬 더 간결하고 예쁜 빛감임을 보여주지.
 이걸 렌즈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렌즈가 몇개의 조리개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인터넷 검색으로 고고생!
 물론 가장 쉬운 방법은 조리개 조이고 한번 찍어보는 것!

B. Shutter Speed: 빠르게? 느리게?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잡느냐 느리게 잡느냐는 전적으로 어떤 사진을 찍느냐에 달렸지만 야간 촬영에서는 아무래도 셔터 스피드 확보가 평소보다 많이 힘들겠지.

움직이는 사물을 좀 더 정확하게 또렷하게 찍고 싶거나 오랫동안 같은 포즈를 유지하기 짜증내는 인물 촬영 같은 경우엔 보조광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느린 셔터 스피드로 촬영을 하게 되면 옆에 보다싶이 예쁜 Light Trail를 보너스로 찍을 수 있게 되지.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도 상황과 원하는 사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다른 스피드로 찍어보고 찾아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거야.

C. ISO & Exposure

ISO 같은 경우엔 요즘 워낙 고감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해도 되겠지만 올림푸스 같이 꼬박꼬박한 센서로 노이즈에 취약한 카메라 같은 경우엔 ISO 800 이상은 되도록이면 안올리는 게 불문율. ISO가 낮을수록 노이즈가 적게 나타나니 광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 되도록이면 감도를 낮춰서 촬영하는 센스!

Exposure 경우엔 그 때 그 때 달라요~

마찬가지로 낮은 감도에 조리개 조이고도 적정 노출을 맞출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엔 노출을 좀 희생하더라도 알맞은 사진을 찍는 게 더 중요해. 노출이야 요즘엔 후보정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니까...

본인은 올림푸스 유저인지라 최악의 상황으로 야간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0.7 EV 까지 떨어트려놓고 촬영을 할 때도 있어. 삼각대가 없어서 손각대를 써야 한다거나 손떨림 방지 시스템이 없는 카메라의 경우엔 사진이 흔들릴 수 있으니 셔터 스피드 확보가 중요한데 여기서 ISO 까지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 희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지.

D. Metering: 측광?

측광이란 말 그대로 광이 얼마나 되나 측정하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크게 평균측광과 부분측광으로 나눌 수 있지. 요즘 카메라는 대부분 멀티패턴측광을 사용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지만 평균측광일 때 필요한 만큼의 빛을 확보할 수 없거나 사물과 배경의 빛 차이가 심할 경우에 부분측광으로 촬영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



자 허접한 강좌는 이쯤에서 마치고
이제 이쁜 야경 사진 찍어서 올려주셈!

확명!